

2017年 五月12日

우이치에 그와 同行 했다.

어제 날 천둥번개로 오랜 스럽게 미세먼지를 씻겼으니까.

산들 산들 봄바람에 노란 들꽃들의 향연이다.

어머!

재두루미다.

유록은 눈앞의 길대 숲에 재두루미가 왔다.

아. 그대여 했어 흥연까지 웃었다.

나는 맨날 散策길에 보는데 침이끼니 자주오면 다짐아...

瞬時 느끼는 황색적인 雀斑을 단호히 황홀 그자해였다.

속눈꺼피에 가까운 색칠로 품에 한듯 이어버디.

그 뾰족한 眉는 眉목으로 반짝였다.

눈은 오리로 돌리기에 순식간에 전이그는 물고기를 물에 넣는다!

황홀한 느끼며 눈을 주었다.

참 리아웠다.

가가가이 막아올때 눈은 황홀한 청각색인데 그 아름다움은 형언키

어려웠다.

노랑 들꽃들의 향연속에 유산히 커다란 큰모를 얻었다 했어

여름 큰모스란다.

후에 정성드려가관 저편은 크는이은 이쪽은 도봉구란다.

내맘에 白鳥의 湖水가 잔잔이 흐른다.